

美 찍고 중동 접수...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가속 페달

올해 판매목표인 30만대 '청신호' 1Q 전기차 판매량 전년 비 50% ↑ 이스라엘 '베스트셀링카' 선정

현대·기아차가 올해 친환경차 판매 목표로 내세운 30만대 돌파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 판매 연간 20만대를 돌파한 현대·기아차가 올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의 수요증가로 연간 3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은 것. 실제 현대·기아차의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하며 '친환경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친환경차 판매가 50만대에 달하는 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요가 기존 내연기관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새로 출시한 전기차를 세계 시장에 집중 소개해 올해를 실질적인 전기차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하이브리드차량(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 전기차(EV),



현대자동차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수소연료전지차량(FCEV) 등 친환경차 판매 목표를 30만대로 설정했다.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연간 판매량은 2009년 6231대, 2012년 6만4720대로 급성장하더니 2016년 12만8976대에서 2017년 25만6258대로 판매가 확대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여기서 고삐를 더 당겨 지난해 대비 4만대 이상을 확대해 30만대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경우 대표 친환경차인 아이오닉이 수출길에 오른 후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올해 1분기 이스라엘에서 작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난 총 4149대가 팔려 전체

모델 중 판매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출시된 해의 시장에 진출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개별 국가에서 베스트셀링 모델로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시장에서 내연기관차가 아닌 친환경차가 베스트셀링카에 등극한 것은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PHEV 포함)는 지난해 내수에서 4467대가 팔렸고 4만8239대가 수출됐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큰 미국에서 9937대가 팔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해외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차를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친환경차 모델 '니로'로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니로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 연 10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고른 인기를 얻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전기차에 큰 기대를 걸

고 있다.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3월 출시된 1만8076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니로를 중심으로 내수시장 공략에 나선다.

여기에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출고기 시작된 넥쏘는 총 62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9일부터 26일까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예약판매를 진행해 총 1061대가 예약돼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순수 전기차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 '니로 EV(7월 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코나 일렉트릭을 미국에 출시할 방침이다. 코나 일렉트릭은 한번 충전 시 최대 470km, 니로 EV는 최대 380km 달릴 수 있는 본격적인 장거리 전기차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각국의 연비 규제와 보조금 정책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판매 성장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드론, 전국 7개 공역서 '훨훨'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LG유플러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감독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대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진단 및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공역에서 비가시권,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추진된 실증사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중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농작물 모니터링 기반의 농약살포 분야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부가 지정한 공역인 강원 영월, 대구 달성, 전남 고흥, 전북 전주, 경남 고성, 부산 영도, 충북 보은 등 전국 7곳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드론관리시스템과 파트너사의 드론기체와 연동해



LG유플러스 무인비행장치.

/LG유플러스

총 3개의 사업분야에 필요한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이와이시스템과는 시설물 안전진단 차원에서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감시한다. 한화정밀기계, 샘코, 제이와이시스템, 프리뉴 등 4개 파트너사는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분야에서 미아, 실종자, 범죄자 등을 찾기 위한 실시간 영상전송과 시설물 점검을 위한 클라우드 영상 저장 기

술을 테스트한다.

또 LG유플러스가 신규 사업분야로 신청한 농작물 모니터링 기반의 농약살포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지주와 한화정밀기계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관계시스템 추가 기능, 기체 안전 솔루션 기술검증, 3D 맵 작성, LTE전파특성 연구 등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한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민 기자



제주항공 실적 고공행진... 사상최대 영업익

영업익 464억원·15분기 연속 흑자

제주항공이 올해 1분기 매출 3086억원, 영업이익 464억원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15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다.

제주항공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308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5% 늘었고, 영업이익은 464억원으로 70.6%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5.0%로 집계됐다. 1분기에 납부한 법인세 113억원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6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7.1% 늘었다.

제주항공 1분기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 매출 규모는 역대 최대 매출이었던 작년 3분기 2666억원보다도 420억원 많은 실적이다. 1분기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분기 기준으로 2014년 3분기부터 15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썼다.

제주항공은 공격적인 기단 확대와 유연한 노선 운용 등을 실적 상승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대, 올해 1분기 2대 등 항공기를 새로 도입하며 현재 총 34대의 기단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39대로 기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1분기 일본·동남아 등 내국인 인기 노선에 항공기를 추가 투입하고, 항공기 동틀을 향상한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정비비, 리스료 등 고정비를 줄이고 다양한 부가사업을 시도한 것도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항공기를 차질 없이 도입해 고정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우리동네 백반 맛집 어디" 네이버 '온라인 백반위크'

네이버는 전국 곳곳의 숨겨진 밥집을 소개하는 '네이버 백반위크'가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맞춰 네이버 모바일 우리동네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백반위크'를 열고, 전국 300여개의 밥집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백반위크의 주인공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우리동네 밥집이다. '5천원 백반', '대학가 단골 밥집', '우리동네 시장 밥집' 등 총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용자의 후기와 더불어 밥집의 대표 메뉴, 장소, 가격 등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밥집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2514@

귀뚜라미 건조성능 높은 '농산물 건조기' 출시

귀뚜라미는 건조성능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 '귀뚜라미 2018년형 농산물 건조기' 신제품 2종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조용량이 85kg 또는 175kg인 2018년형 귀뚜라미 농산물 건조기는 고효율·저소음 팬모터로 건조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커진 특수강화 플라스틱 채반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2종에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단열재와 고장력 마그네틱으로 구성된 이중 기밀장치가 적용됐다. 이 장치는 건조기의 밀폐력을 높여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해 소비자의 전력비 부담을 줄여준다.



또 농산물 건조기 내부에 안전 그물망을 설치해 벌레나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고, 자동 배수 조절기를 내장해 습기 배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최상의 건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건조용량 기준 85kg이 220만원, 175kg이 350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귀뚜라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